

어느 날, 나는 지구를 만났어



너는 오늘
누구를
만났니?



오늘, 나는 지구를 만났어

영유아 가정 생태 · 환경 실천 활동



이 책은

2025년 영유아 생태·환경활동에 참여한 가족들의
기록을 모아 엮었습니다.

2025년, 아이들이 만난 오늘의 지구입니다.

나는 지구를 만나러
밖으로 나갔어

햇빛이 내려와

나를
포근하게
안아줬어





“해님아 안녕?”

하늘을 올려다봤어

눈이 부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,

따뜻함은 느껴졌어

그러다
해님이 뜨거워지고,

“더
워”



몸에서 땀이 흐르면,

그럴 땐 나무에게 가면 돼



“왜냐고?”



큰 나무가

시원한 그늘을

만들어 주거든



“ 나무야 그들을 선물해 줘서 고마워 ”





나무 아래 가만히 있으면

사랑이는 **바람**이



내 머리를
간지럽혀

“바람아, 안녕?”



바람은
보이지 않지만,
눈을 감으면
느껴져





반짝이는 물은



내 몸을
촉촉하게 해 주고

길가에 핀 **꽃**은



예쁜 색과



향기를

건네줘





“**후** 물면 날아가네”





“꽃에서
달콤한 향기가 나”

줄 지어 가는 **개미**



“개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?”



날아오르는 새

“까치야,
나랑 같이
놀자”

가까이 다가가면





새는 멀리 날아가

하지만
어디선가
들리는 새소리는



우리를 부르는 것 같아



“다음엔 조심히



천천히 다가갈게”

흙과 모래 사이



작은 돌멩이



“발자국이 생겼어”



“돌멩이를
쿵쿵 치면
가루가 떨어져요”



그 안에서 만난 친구들







그리고 우리를







“이 모든 게 다 지구래”



“너는
오늘
누구를 만났니?”



A photograph showing two children from behind, looking out a large window. The child on the left is wearing a grey and white striped long-sleeved shirt and has their hands on the window frame. The child on the right is wearing a light blue shirt. Outside the window, there are several tall, modern apartment buildings and some greenery. The scene is brightly lit, suggesting daytime.

“어떤 모습의 지구를 만났니?”

함께 읽는 분들께

이 책에 담긴 사진과 말들은
2025년, 아이들이 만난 오늘의 지구입니다.

꽃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고,
작은 생명과 눈을 맞추던 순간들이
가정에서 전해 주신 기록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.

아이들에게 자연은
지켜야 할 대상이기 전에
이미 만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.

2026년, 또 다른 오늘이 시작됩니다.

올해는 어떤 지구를 만나게 될까요?

아이의 눈과 말 속에서
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
지구의 모습을 함께 만나 보길 바랍니다.



오늘 우리 아이는 어떤 지구를 만날까요?

이렇게 함께 해 주세요 😊

우리 아이의 오늘을 담아주세요.

아이와 자연이 만난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 주세요.

그 순간 아이의 표정이나 시선, 행동, 아이가 건넨 한 마디도 함께 담아주세요.

이렇게 나눠 주세요.

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해주세요.

#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#아이의 지구
@gyeonggi.childcare 태그

※ 인스타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QR코드를 통해 구글폼으로 제출 가능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.



발행일 2026년 3월

발행처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

발행인 홍원자

편 집 김효진(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팀장)

이가림(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)

주 소 (16626)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-16, 5층

발간등록번호

2026-03호

영유아 가정 생태·환경 실천 활동